

종합-전문건설간 업무영역 칸막이 40여년만에 사라진다

2021년 공공·2022년 민간공사

건설산업 양대 업종인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업역규제' 울타리가 2022년 까지 완전히 허물어진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7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등을 담은 건설산업 생산구조혁신로드맵에 합의했다.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전문건설

업 시공자격을 제한한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시장 진출 허용 등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현행 토목(종합)건설사만 수주 가능한 도로공사는 관련 세부업종 자격을 지닌 전문업체 및 컨소시엄에게도 도급이 허용된다. 또 전문건설업 도장 공사업체만 맡던 외벽 도장공사에 대해 건축(종합)업체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은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 2024년부터 허용한다. 이 밖에도 전문업종을 통합하는 대업종화, 건설사 등록기준 조정 등의 방안도 담겼다.

이상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 직무대행은 "공정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직접시공능력이 향상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건설업계 상생을 목표로 한 좋은 취지지만 각 업체마다 갖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건설업계 '종합·전문' 칸막이 없앤다

국토부·양 업종 협회장 합의

2021년 공공공사부터 폐지

무한경쟁 직면 기대·우려 교차

정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45년만에 허물기로 하면서 무한경쟁앞에 놓인강원 건설업 업종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수주구조를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1976년부터 도입된 종합 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시공자격 제한을 2021년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사는 원도급 종합공사 위주로, 전문건설사는 전문공사의 원·하도급만 집중했지만, 개정된 규제로 상호간 업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전문건설사가 맡아 온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종합건설사도 수주하고, 종합건설사가 해온 토목공사도 전문건설사가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양 건설업계는 입장차

를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와 양 건설업계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상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부회장은 "역량이 있는 강원 전문건설사가 업역규제 때문에 종합공사를 수행할 여건에도 일감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성장에 제동이 걸려왔는데 이번 규제개혁으로 강원도 전문건설업계의 성장이 극대화될 것이다"며 "그동안 업역규제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의 수직관계가 존재했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될 것이다"고 반겼다.

반면 종합건설사들은 업역간 상호 진

출에는 환영하는 반면 상당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우려하고 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상호간 업역진출로 종합건설사들의 일감이 늘어날 수 있어 경쟁력만 있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오 회장은 "지금까지 강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맡으면서 하자보수까지 모두 책임졌는데 전문건설사들이 모인 컨소시엄도 종합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하자보수 발생시 함께 일한 전문건설사간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